

조선 후기 의궤의 정재도(呈才圖) 기록 현황

조 경 아*

I. 머리말
II. 정재도의 제작 배경
III. 정재도의 기록 현황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I. 머리말

조선시대의 의궤(儀軌)는 2007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뛰어난 기록성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의궤는 궤범이 되는 책이라는 뜻으로 여러 의례의 모델이 되는 책인데, 의궤는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기록이 되었으나 현재는 임란 이후의 의궤만 전한다. 의궤는 문자 기록과 현장 기록이 합쳐진 보고라는 점에서 가장 독특하다.¹⁾

의궤는 한국공연예술사 연구에서도 주목할 자료이다. 특히 정재(呈才) 연구에서 의궤자료는 정재가 공연된 결과물뿐만 아니라 정재가 준비되는 일련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소중하다. 즉 정재 여령과 무동의 선발, 연습 과정, 소품과 의상 준비, 정재 공연, 공연 후의 포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 이 논문은 <한국음악사학과 의궤>라는 주제로 열린 제12회 음악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다(일시: 2012년 5월 25일,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소극장, 주최: 한국음악사학회).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연구교수, choom71@hanmail.net

1) 한영우(2005), 『조선왕조 의궤』(서울: 일지사), pp.31-33.

오갔던 공문서들이 집대성되어 있다.²⁾ 따라서 공연자의 소소한 모습들을 읽을 수 있는 한국춤화사 연구의 보고이기도 하다.

정재 연구에서 의궤 자료가 더욱 중요한 것은 개별 정재의 그림, 즉 궁중의 정재도가 기록된 유일한 자료라는 점이다. 조선 전기의 『악학궤범(樂學軌範)』과 고종대의 『정재무도홀기(呈才舞圖笏記)』에서는 초입배열도가 문자로 그려져 있어서 시작할 때의 무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자만으로 몸의 움직임을 알기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의궤의 정재도는 무동과 여령의 춤동작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정재도에서 무원의 공간 구성, 무원의 숫자와 역할, 무대도구 등이 한 눈에 포착되므로 정재의 공연 상황이 눈앞에 그려진다. 이처럼 춤의 매체인 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정재도를 학술적으로 조망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 정재도 연구는 시작단계이다. 포구락(抛毬樂)·보상무(寶相舞)·수연장(壽延長)·향령무(響鈴舞)·검기무(劍器舞)·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등 개별적인 정재 종목의 정재도를 파악한 손선숙의 정재도 연구는 초기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나,³⁾ 일부 의궤만을 연구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 즉 의궤도가 전하는 12종의 의궤 중에서 6종의 의궤를 검토하고, 6종의 의궤를 검토하지 않았다. 누락된 의궤는 을묘년(1795) 『정리의궤』·무진년(1868) 『진찬의궤』·정축년(1877) 『진찬의궤』·정해년(1887) 『진찬의궤』·임진년(1892) 『진찬의궤』·임인년(1902) 4월 『진연의궤』이다. 예컨대 포구락의 정재도는 12종 의궤에 모두 17점이 전하는데, 6종 의궤에 수록된 8점의 포구락 정재도가 검토되지 않았다.⁴⁾ 이처럼 손선숙의 연구는 연

2) 이와 관련해서는 조경아(2009), 조선 후기 儀軌를 통해 본 呈才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참조.

3) 손선숙(2004), 抛毬樂 呈才圖 研究, 『한국무용사학』 3, pp.7-34. 손선숙(2004), 보상무 정재도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14, pp.143-164. 보상무 정재도는 모두 14점인데, 5종 의궤에 수록된 7점의 정재도가 검토되지 않았다. 손선숙(2005), 壽延長 呈才圖 研究, 『한국무용사학』 4, pp.103-121. 수연장 정재도는 모두 14점인데, 5종 의궤에 수록된 7점의 정재도가 검토되지 않았다. 손선숙(2007), 響鈴舞 呈才圖 研究, 『한국음악사학보』 38, pp.79-105. 향령무 정재도는 모두 14점인데, 5종 의궤에 수록된 7점의 정재도가 검토되지 않았다. 손선숙(2008), 의궤의 검기무 정재도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4, pp.129-144. 검기무 정재도는 모두 11점인데, 6종의 의궤에 수록된 6점의 정재도가 검토되지 않았다. 손선숙(2008), 의궤 정재도 가인전목단의 도상학적 연구, 『동방학』 15, pp.345-375. 가인전목단 정재도는 모두 16점인데, 5종 의궤에서 수록된 7점의 정재도가 검토되지 않았다.

구대상에 해당하는 의궤도를 절반 정도만 검토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개별 정재도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고종 신축 『진연의궤』 정재도를 대상으로 정재도에 나타난 대형을 살펴보기도 했다.⁵⁾

정재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의궤의 정재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다는 점과 정재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거시적인 시각의 정재도 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제기하며 본 연구에서는 12종 의궤 전체의 정재도를 대상으로 삼아 현재 전해지는 정재도 전반의 현황을 밝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재도’라는 사료적 특성과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정재도의 제작 배경을 살펴 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정재도를 누가 만들었는가? 어디서 만들었는가? 언제 만들었는가? 왜 정재도를 만들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정재도를 만들었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답을 시도하여 정재도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의궤에 정재도가 기록된 조선후기이며 대한제국을 포함한다. 연구대상은 정재도가 기록된 12종의 의궤에 해당하며 그 목록은 <표 1>과 같다. 정재가 기록된 의궤는 모두 17종이지만, 그 중 정재도가 수록된 의궤는 12종이다.⁶⁾ 필요에 따라 정재가 그려진 도병자료도 참고하여 비교할 것이며, 도상자료를 포함한 문헌연구방법으로 연구한다. 연구방법은 정재도가 수록된 12종 의궤의 권수(卷首) 도식(圖式)에 수록된 정재도를 장서각과 규장각에서 수집하여⁷⁾ 연향별, 정재별로 분류한 뒤에 수록된 현황을 표로 제시하고, 정재도에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볼 것

4) 손선숙의 연구에서 포구락 정재도가 검토되지 않은 의궤는 을묘년(1795) 『정리의궤』; 무진년(1868) 『진찬의궤』; 정축년(1877) 『진찬의궤』; 정해년(1887) 『진찬의궤』; 임진년(1892) 『진찬의궤』; 임인년(1902) 4월 『진연의궤』이다.

5) 손선숙(2011), 고종 신축 『진연의궤』 정재도의 정재대형 연구, 『한국문화학 예술』 7, pp233-259.

6) 경오년(1630) 『풍정도감의궤』; 기해년(1719) 『진연의궤』; 갑자년(1744) 『진연의궤』; 을유년(1695) 『수작의궤』는 정재가 공연된 기록이 전하지만 정재도가 없고, 계유년(1873) 『진작의궤』는 권수 부분이 결본이라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7) 장서각에 소장된 의궤의 정재도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http://lib.aks.ac.kr>)에서 원문이미지를 모두 다운받을 수 있다. 필자는 장서각 자료를 웹으로 이용했는데, 1902년 4월 진연의궤 권3의 이미지가 11월 진연의궤의 것으로 바뀐 오류를 발견했다. 규장각 소장 의궤의 정재도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lib.aks.ac.kr>)에서 일부만 제공된다. 장서각과 규장각을 통틀어 웹으로 정재도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유일한 자료는 무진년 『정리의궤』의 정재도이다. 규장각에서 이미지파일로 제공할 때 권수 도식이 누락되었다.

〈표 1〉 정재도(呈才圖)가 수록된 의궤 목록 (*표시는 국립국악원, 『韓國音樂學資料叢書』의 권수)

| 의궤명 | 연향 년도 | 연향 목적 | 소장처 및 도서번호 | 영인 |
|-----------------------------|--------------|---------------------|-----------------|-----|
| 1. 을묘년 『정리의궤』 ⁸⁾ | 1795(정조19) | 혜경궁 홍씨 회갑 | 국14532, 장2-2897 | 수원시 |
| 2. 무자년 『진작의궤』 | 1828(순조28) | 순원왕후(왕비) 사순(四旬) | 국14364, 장2-2859 | *3 |
| 3. 기축년 『진찬의궤』 | 1829(순조29) | 순조 사순 · 등극 30년 | 국14369, 장2-2873 | *3 |
| 4. 무신년 『진찬의궤』 | 1848(현종14) | 순원왕후(대왕대비) 육순 | 국14371, 장2-2874 | *6 |
| 5. 무진년 『진찬의궤』 | 1868(고종5) | 신정왕후 회갑 | 국14374 | |
| 6. 정축년 『진찬의궤』 | 1877(고종14) | 신정왕후(대왕대비) 칠순 | 국14376, 장2-2875 | |
| 7. 정해년 『진찬의궤』 | 1887(고종24) | 신정왕후(대왕대비) 팔순 | 국14405, 장2-2876 | |
| 8. 임진년 『진찬의궤』 | 1892(고종29) | 고종 망오(41세) · 등극 30년 | 국14428, 장2-2880 | |
| 9. 신축년 『진찬의궤』 | 1901(광무5)5월 | 효정왕후(명헌태후) 망팔(71세) | 국14446, 장2-2881 | *23 |
| 10. 신축년 『진연의궤』 | 1901(광무5)7월 | 고종 오순 | 국14464, 장2-2868 | *24 |
| 11. 임인년, 4월 『진연의궤』 | 1902(광무6)4월 | 고종 51세로 기로소 입사 | 국14479, 장2-2871 | |
| 12. 임인년, 11월 『진연의궤』 | 1902(광무6)11월 | 고종 망육(51세) 어극 40년 | 국14370, 장2-2867 | 규장각 |

이다. 또한 각 의궤의 정재도가 정확하게 그려졌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공연자의 역할과 명단이 상세히 기록된 의궤의 공령(工伶) 부분과 비교할 것이다.

II. 정재도의 제작 배경

1. 정재도의 제작 주체와 주관부서

정재도는 궁중기록화의 일종이다. 조선시대의 궁중기록화는 왕이나 왕세자가 국가 통치의 주체로서 수행한 국가와 왕실의 전례의식(典禮儀式)을 기념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제작한 그림을 말한다. 궁중기록화는 유교라는 특정한 통치 이념을 배경으로 제한된 규범 속에서 생산되었다. 궁중기록화는 의궤에 수록된 반차도(班次圖), 또는 도식(圖式, 圖說)을 지칭하는 의궤도와 실제로 거행된 국가 의식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궁중기록화로 크게 나눌 수 있다.⁹⁾

정재도는 누구의 주관으로 만들어졌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주관으로

8) 다른 연향의궤와 표기를 통일하기 위해, 『園幸乙卯整理儀軌』를 乙卯年 『整理儀軌』로 표기하였다. 이하 같음.

9) 박정혜(2000),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서울: 일지사), p.9.

의궤를 제작했으며, 의궤 제작은 의궤청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한 사례로 1795년(정조 19)에 혜경궁 홍씨 회갑을 경축하는 봉수당 진찬 및 행행의 과정이 기록된 정조 을묘년 『정리의궤』의 제작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윤2월 13일의 봉수당 진찬을 마치고 2주 뒤인 윤2월 28일부터 주자소(鑄字所)에 의궤청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의궤청을 총괄하는 총리대신은 진찬을 준비하는 기구인 정리소에서 총리대신을 했던 좌의정 채제공이 맡았다. 의궤청의 인물구성은 다른 해보다 많았으며, 당상과 낭청은 정리소에서도 일했던 인물이 대부분이나, 일부는 다른 인물로 교체되기도 했다.¹⁰⁾

정조는 의궤의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독려했다. 윤2월 28일에 의궤청 업무를 시작한 뒤에 8월 15일 무렵에는 의궤의 교정이 끝났다고 보고하자, 정조는 의궤의 인쇄날은 길일을 택하고 활자는 '생생자본(生生字本)'을 쓰라고 지시했다.¹¹⁾ 일관이 택한 길일인 1797년(정조 21) 3월 24일 묘시(07~09시)에 인쇄하였으니,¹²⁾ 행사를 마치고 2년 1개월 정도 뒤에 간행된 셈이다. 의궤 100여권을 제작하여 정조는 광범위하게 배포했다.¹³⁾

정재도는 누가 그렸는가? 정재도를 포함한 의궤 제작을 국가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도화서의 회원 출신이 그렸으리라 예상된다. 현종 무신년(1848) 『진찬의궤』의 도식은 65면이고, 그 중 정재도는 16면이다. 의궤의 총 제작 기간은 1년 1개월이 걸렸는데, 전체 도판은 3명의 직업화가가 동원되었고 별간역 문신(文臣) 3명이 도식의 제작을 감독하였다. 공적(公的)인 그림을 제작할 때 문인 또는 선비가 감독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일반화된 상황이었으며,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그림에 문인적인 취향과 기준이 반영되도록 하였다고 한다.¹⁴⁾

2. 정재도의 제작 시기

정재도를 언제부터 만들었는가? 연향관련 의궤의 전범(典範)은 정조 을묘년 『정

10) 正祖 乙卯年 『整理儀軌』 卷首4a12-6a8. 「座目」.

11) 正祖 乙卯年 『整理儀軌』 卷1.27a5-9. 1795년(정조 19) 8월 15일. 「傳教」.

12) 正祖 乙卯年 『整理儀軌』 卷2.92a10-92b2. 「啓辭」. 1797년(정조 20) 3월 13일.

13) 正祖 乙卯年 『整理儀軌』 卷1.33a1-34a2. 1797년(정조 21) 3월 24일. 「傳教」.

14) 朴銀順(2005), 조선후기 의궤의 판화도식, 『국학연구』 6, p.280.

리의궤』이며, 목판화의 정재도가 수록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전의 필사본 연향 의궤에는 정재도가 수록되지 않았다. 정재 관련 기록도 『정리의궤』가 이후 의궤의 전형이 되었다.

정재도는 의궤의 제작과 함께 이루어진다. 모든 연향이 끝난 뒤에 의궤가 제작되므로 정재도 또한 연향이 끝난 뒤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재 공연의 한 장면을 포착하여 그린 정재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을까? 조선후기에 연향이 끝난 뒤에 선상여령은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으므로, 실제 춤추는 사람을 모델로 놓고서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은 적다. 무원의 구성을 비교적 정확히 그렸으니, 각 정재에 참여한 무원에 관한 정보를 갖고서 그림을 그린 듯하다. 정재도에 표현된 상대이무(相對而舞)나 상배이무(相背而舞)를 보면, 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정재도를 그린 것 같은데, 실제 연습이나 공연을 유심히 보고서 뒤에 목판화로 제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혹은 밑그림은 실제 연습이나 공연 때에 그려놓고, 판화로 제작하는 것은 연향이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3. 정재도의 제작 방식과 목적

정재도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나? 이는 일반적인 의궤도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궤도식의 제작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16세기까지는 거의 모든 의궤 도식을 손으로 직접 그렸다. 17세기부터 판화 채색법이 등장하였고, 18세기에는 판화기법이 좀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목판화의 수법은 정조 연간에 정착되었고, 그림 전체를 목판화로 찍은 가장 이른 의궤가 1795년에 제작되어 1797년에 간행된 을묘년 『정리의궤』이다. 이 의궤는 활자본으로 인쇄하였고, 목판화의 도식이 실려 있다. 이후 전례를 중시하는 궁중의례의 관습에 따라 임인년(1902) 11월의 『진연의궤』까지 이러한 방식은 지속되었다.¹⁵⁾

의궤도는 후대에 참고자료로서 이용하기 위해 보존된 그림이다.¹⁶⁾ 정재도가 제작된 것도 후대에 참고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 시대의 정재도가 뒤에

15) 앞의 글, pp.266-269.

16) 박정혜(2000), p.9.

나온 정재도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정재에 따라서 그림이 다양한 경우도 있고, 고정적인 경우도 있다. 고정적인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린 정재도는 이전에 간행된 의궤를 따르겠으나, 춤의 또 다른 장면을 포착하여 그린 정재의 경우에는 전례를 참고하더라도 화가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III. 정재도의 기록 현황

1. 의궤별 검토

1) 여령과 무동의 정재도 수록 양상

의궤별로 어떤 정재도가 수록되었나? 우선 여령이 춤추는 정재도와 무동이 춤추는 정재도가 함께 수록된 의궤를 찾아보기로 한다. 모두 5종의 의궤에서 여령과 무동의 정재도가 함께 수록되었는데, 순조 기축년(1829) 『진찬의궤』와 고종 임진년(1892) 『진찬의궤』, 고종 신축년(1901) 『진연의궤』, 고종 임인년(1902) 4월과 11월의 『진연의궤』이다.

정재도가 수록된 12종의 의궤 중에서 겨우 5종의 의궤만이 여령과 무동의 정재도를 함께 수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연향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대왕대비 등 왕실 여성 어른에게 올리는 잔치로 왕실의 친인척이 초대되는 여성 중심의 잔치인 내연(內宴)에서는 여령이 정재를 공연하고, 임금에게 올리는 잔치로 대소신료들이 초대되는 남성 중심의 잔치인 외연(外宴)에서는 무동이 정재를 공연했다. 위의 5종 의궤는 내연과 외연이 함께 열린 연향이었기 때문에 무동과 여령의 정재도가 모두 수록된 것이다.

한 의궤에 여령의 정재도와 무동의 정재도가 같이 수록된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기축년 『진찬의궤』에서 순조의 40세와 즉위 30년을 경축한 2월의 외진찬에서 무동의 정재도는 6종목에 불과한 반면, 내진찬에서 여령의 정재도는 18종목이 수록되었다. 순조의 생신 즈음인 6월에 다시 내진찬이 열렸는데, 이때 무동의 정재

도는 11종목이었다. 임진년 『진찬의궤』에서 무동의 정재도는 18종목이었고, 여령의 정재도는 그 보다 많은 26종목이었다. 신축년 『진연의궤』에서 무동의 정재도는 17종목, 여령의 정재도는 24종목으로 더 많았다. 임인년 4월 『진연의궤』에서도 무동의 정재도는 23종목인데, 여령의 정재도는 24종목으로 한 종목 더 많았다. 임인년 11월 『진연의궤』에서 처음으로 무동의 정재도가 더 많았는데, 무동의 정재도가 25종목, 여령의 정재도가 21종목이었다. 대부분 무동의 정재도보다 여령의 정재도가 더 많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기록의 차이는 실제 내연에서 더 많은 정재종목을 공연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

다음으로 여령이나 무동의 정재도만 기록된 의궤는 모두 7종이다. 그 중 여령의 정재도만 기록된 경우는 6종으로 정조 을묘년(1795) 『정리의궤』에 14종목의 정재도가 실렸고, 현종 무신년(1848) 『진찬의궤』에 16종목, 고종 무진년(1868) 『진찬의궤』에 10종목, 고종 정축년(1877) 『진찬의궤』에 16종목, 고종 정해년(1887) 『진찬의궤』에 21종목, 고종 신축년(1901) 『진찬의궤』에 20종목의 정재도가 수록되었다. 이 의궤들은 모두 왕실의 여성어른에게 올린 내연이었기 때문에 내연에서 공연한 여령의 정재도만 수록되었다.

무동의 정재도만 기록된 경우는 순조 무자년(1828) 『진작의궤』가 유일하다. 2월에 열린 진작에서 공연된 무동의 정재도는 권수(卷首)에 9종목이 수록되었고, 6월에 열린 진작에서 공연된 무동의 정재도는 부편(附編)에 23종목이 수록되었다. 6월의 진작은 내연이었는데도 이례적으로 무동이 정재를 공연했기 때문에, 무동의 정재도만 존재한다.

2) 의궤별 정재도의 기록 특징

특정 의궤의 정재도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을까? 정조 을묘년 『정리의궤』부터 정재도가 의궤에 수록되기 시작했으나, 기점이 되는 을묘년 정리의궤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보기로 한다.

정조 을묘년 『정리의궤』의 정재도의 특징은 등장인물이 많다는 점이다. 지면을 꽉 채우는 구성방식을 보여준다. 즉, 정재를 현재 공연하는 무원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무원들까지 한 화면에 담아냈다. <그림 1>의 향발무와 <그림 2>



〈그림 1〉 향발
을묘년 『정리의궤』 권수11b.



〈그림 2〉 연화대
을묘년 『정리의궤』 권수12b.



〈그림 3〉 선유락
을묘년 『정리의궤』 권수14b.

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공연되는 상황을 보다 충실히 그려내려고 했던 측면과 좀 더 장엄하고 화려한 효과를 내려했던 측면이 있었던 듯하다. 〈그림 3〉의 선유락에서 뒤에 대기하고 있는 여령이 없는 것은 선유락 정재가 전 출연진이 참가



〈그림 4〉 무고
무자년 『진작의궤』 권수16a



〈그림 5〉 첨수무
기축년 『진찬의궤』 권수19b

하는 대규모의 정재였기 때문이다.¹⁷⁾ 대기자가 그려진 여령의 정재도는 을묘년 『정리의궤』가 유일하다. 그러나 무동의 정재도 중에서 순조 무자년 2월의 『진작의궤』와 기축년 2월의 『진찬의궤』에서는 〈그림 4〉와 〈그림 5〉처럼 출연을 기다리는 무동의 대기하는 모습이 정재도마다 그려져 있다.

〈그림 2〉에서 죽간자 뒤의 오른쪽에 서있는 집박 담당 여기(女妓)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전하는 9종의 연화대무 정재도 중에 유일하게 을묘년 『정리의

17) 正祖 乙卯年 『整理儀軌』 卷5.32b7. 「工伶」 “船遊樂時，則諸妓并進.”



〈그림 6〉 무고
 을묘년 『정리의궤』권수10b.



〈그림 7〉 포구락
 을묘년 『정리의궤』권수10a.

이지 않는다. 자세하게 정재도를 그렸던 특징이 단적으로 나타난 예이다.

쌍무고, 쌍포구락 등으로 확대된 정재 형식이 그림으로 나타난 것도 을묘년 『정리의궤』가 처음이다(〈그림 6〉, 〈그림 7〉). 그 이후로는 한 동안 이런 확대된 형식이 보이지 않다가 고종 임인년 4월과 11월의 진연의궤에서 다시 쌍무고, 쌍포구락의 정재도가 등장했다. 을묘년 『정리의궤』의 쌍포구락은 화성의 봉수당 진찬 제3작에서 공연된 정재였는데, 좌무(左舞) 4인은 경기(京妓)로, 우무(右舞) 4인은 화성의 향기로 구성되어 경향 간에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공(彩毬)을 포구문에 넣도록 하였다.¹⁸⁾ 경기로 구성된 좌무 4인은 의녀 춘운(春雲, 31세)과 침선비 창섭(昌蟾, 28세)·운선(雲仙, 24세)·옥이(玉伊, 20세)였고, 화성 향기로 구성된 우무 4인은 가차비(歌差備)인 운애(允愛, 27세)·월동(冬月, 25세)·경희(景喜, 17세)와 무차비(舞差備)인 복취(福翠, 21세)가 참여했다. 그 밖에 공을 넣지 못한 자에게 벌로 먹점을 찍어주는 봉필(奉筆)의 역할을 의녀 철옥(哲玉, 25세)이 맡았고, 죽간자 2인과 포구문을 드는 2인이 배정되었다.¹⁹⁾ 참여한 인물들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본다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다.

다음으로 순조 무자년(1828) 『진작의궤』 정재도에 나타난 기록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정재도에서 생략되는 요소가 많았다. 예컨대 〈그림 8〉의 포구락 정재에서는 당악정재이면 등장하는 죽간자가 생략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이 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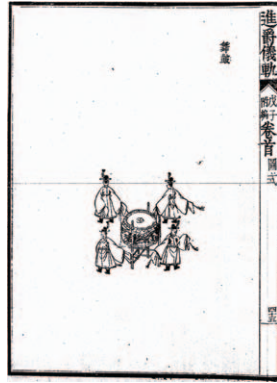
18) 조경아(2009), p.128.

19) 正祖 乙卯年 『整理儀軌』 卷5, 31b12-32a11. 「공령」

문에 들어가면 상으로 꽃을 주는 역할인 봉화(奉花)나 공이 포구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별로 먹점을 찍는 역할인 봉필(奉筆)의 존재도 생략되었다. 봉화나 봉필의 생략은 공연에 따라 있을 수 있으나 죽간자가 생략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었다.



〈그림 8〉 포구락
무자년 『진작의궤』부편.46b



〈그림 9〉 무고
무자년 『진작의궤』부편.45b

〈그림 9〉의 무고 정재는 역대 최대로 적은 인원인 4명으로만 구성되었다. 구성요소의 생략이나 적은 인원로 구성된 까닭은 전체 정재에 출연한 무동이 총 6명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무자년 『진작의궤』만 유일하게 실린 정재도가 많았다. 1828년 6월 1일에 순조비 순원왕후의 40세를 경축하여 열린 연경당(演慶堂) 진작을 기록한 부편에 수록된 망선문(望仙門)·박접무(撲蝶舞)·영지무(影池舞)·춘대옥촉무(春臺玉燭舞)·고구려무(高句麗舞)·연화무(蓮花舞) 등 6종목은 각기 유일하게 전하는 정재도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2. 정재별 검토

1) 정재도의 분포

조선후기 의궤에 전하는 정재도는 모두 342점이고, 44종목의 정재가 그려져 있다(〈표 2〉 참조). 가장 많은 정재도가 그려진 정재 종목은 19점의 정재도가 그려진 무고(舞鼓)이다. 정재도가 많이 그려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9점의 정재도: 무고
 17점의 정재도: 포구락
 16점의 정재도: 가인전목단
 15점의 정재도: 아박무·몽금척·헌선도
 14점의 정재도: 보상무·수연장·장생보연지무·향령무
 11점의 정재도: 검기무·선유락·춘앵전
 10점의 정재도: 사선무·연백복지무
 9점의 정재도: 경풍도·만수무·연화대무·제수창·향발
 8점의 정재도: 학무·헌천화
 7점의 정재도: 봉래의·육화대·하황은
 6점의 정재도: 침수무·초무
 5점의 정재도: 무애무·침승무
 4점의 정재도: 광수무·차용무·최화무
 3점의 정재도: 오양선·무산향·춘광호·침향춘
 2점의 정재도: 공막무²⁰⁾
 1점의 정재도: 관동무·고구려무·망선문·박접무·연화무²¹⁾·영지무·춘대옥축

1점의 정재도가 남은 7종목의 정재는 의궤에서 단 한차례만 기록되었으며, 모두 관련된 정재무도홀기(舞才舞圖笏記)가 전한다. 관동무를 제외한 6종목의 정재는 모



〈그림 10〉 관동무
 무신년 『진찬의궤』권수.20a



〈그림 11〉 고구려
 무자년 『진작의궤』부편.47a



〈그림 12〉 망선무
 무자년 『진작의궤』부편.37a

20) 공막무(公莫舞)라는 정재도명은 1점만 전하나, 戊子年 『進爵儀軌』 卷首.15a의 침수무(尖袖舞) 정재도는 실제로 공막무를 그려 넣고, 이름을 침수무로 오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공막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21) 연화무(蓮花舞)라는 정재도명은 2점이 전하나, 純祖 己丑年 『進饌儀軌』 卷首.24b의 연화무(蓮花舞)는 실제로 연화대무(蓮花臺舞)를 그려 넣고, 이름을 연화무로 오기하였으므로 여기서 바로잡아 처리하였다.



〈그림 13〉 박접
무자년 『진작의궤』부편.4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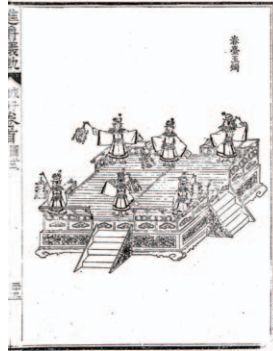
〈그림 14〉 연화무
무자년 『진작의궤』부편.42a



〈그림 15〉 영지
무자년 『진작의궤』부편.40b

두 무자년(1828) 6월 1일의 연경당 진작 때 공연되었다(〈그림 10〉~〈그림 16〉).

정재도가 많이 기록된 정재는 공연이 빈번했던 정재와 거의 비례한다. 조선 후기의 진연은 기쁜 일을 기념하는 연향을 한차례만 여는데 그치지 않고, 내연·외연·야연·왕세자회작 등 여러 잔치를 연이어 여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 후기 17종 의궤를 토대로 한 연향에서 여러 번 공연한 정재를 각각 산정하여 정재의 공연 횟수를 산출하면 무고가 45회 공연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었고, 선유락 44회, 포구락은 42회로 나타났다.²²⁾ 무고·포구락·선유락의 정재도가 수록된 빈도와 공연 횟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춘대옥축
무자년 『진작의궤』부편.39a

정재도의 공연 횟수와 정재도의 횟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까닭은 정재도의 경우 여령이나 무동이냐에 따라 한 차례만 그림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종 신축년(1901) 『진찬의궤』에서 선유락은 다섯 차례 공연되었다. 1901년 5월 13일 손시의 내진찬(內進饌), 5월 13일 해시의 야진찬(夜進饌), 5월 16일 손시의 대전 회작(大殿會酌), 5월 16일 해시의 대전 야연(大殿夜讌), 5월 18일 손시의 황태자 회작(皇太子會酌), 5월 18일 해시의 황태자 야연(皇太子夜讌)에서 여령은 선유락 정재를

22) 조경아(2009), p.172.

공연했는데, 도식의 정재도에는 1점의 선유락 정재만 그려졌다.

2) 정재도의 다양성

동일 정재에는 얼마나 다양한 정재도가 그려졌을까 궁금하다. 의궤에 가장 많은 정재도가 기록된 무고의 정재도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령과 무동이 춤춘 무고의 정재도는 모두 19점인데, 시기 순으로 제시하면 1795년(정조 19)에 화성의 봉수당 진찬에서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경축하여 무고를 춤춘 <그림 17>에서 1902년(임인 6)에 경운궁(덕수궁) 관명전 내진연에서 고종황제의 51세와 즉위 40년을 경축하여 무고를 춤춘 <그림 35>까지이다.



<그림 17> 무고
을묘년 『정리의궤』권수.10b



<그림 18> 무고
무자년 『진작의궤』권수.16a



<그림 19> 무고
무자년 『진작의궤』부편.45a



<그림 20> 무고
기축년 『진찬의궤』권수.18b



<그림 21> 무고
기축년 『진찬의궤』권수.24a



<그림 22> 무고
기축년 『진찬의궤』부편.61a



〈그림 23〉 무고
무신년 『진찬의궤』 권수.19a



〈그림 24〉 무고
무진년 『진찬의궤』 권수.1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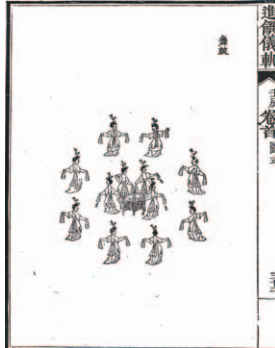
〈그림 25〉 무고
정축년 『진찬의궤』 권수.21b



〈그림 26〉 무고
정해년 『진찬의궤』 권수.24b



〈그림 27〉 무고
임진년 『진찬의궤』 권수.2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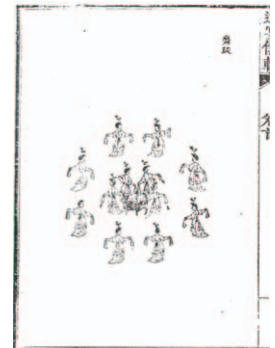
〈그림 28〉 무고
임진년 『진찬의궤』 권수.32b



〈그림 29〉 무고
신축년 『진찬의궤』 권수.20b



〈그림 30〉 무고
신축년 『진연의궤』 권수.24b



〈그림 31〉 무고
신축년 『진연의궤』 권수.30b



〈그림 32〉 무고

임인년 4월 『진연의궤』 권수.30b



〈그림 33〉 무고

임인년 4월 『진연의궤』 권수.18b



〈그림 34〉 무고

임인년 11월 『진연의궤』 권수.26b



〈그림 35〉 무고

임인년 11월 『진연의궤』 권수.41a

무고 정재도의 다양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무고의 정재도가 정확하게 그려졌는가를 점검하는 사료 비판이 필수적이다. 각 의궤의 공령(工伶) 항목에는 각 정재에 출연한 여령과 무동의 역할과 인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정재도와 비교해 보았다. 19점의 무고 정재도 중에 3점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첫째, 2점의 그림은 공령의 기록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그려 넣었다. 을묘년 『정리의궤』의 공령에서 무고의 무원은 8명, 봉고 3명이었다.²³⁾ 복을 놓는 역할인 봉고는 정재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원을 8명 그려야했는데, 정재도에서는 원무 8명, 협무 8명, 집박 2인, 집사 1인이 그려졌다(〈그림 17〉). 협무 8인이 더 그려진 셈이다. 또한 신축년 『진연의궤』의 공령에서 여령이 공연한 무고의 무원은 원무 4명, 협무 4명, 봉고 4명이었다.²⁴⁾ 그런데 정재도에서는 원무 4명, 협무 8명이 그려져서 협무 4명이 더 그려졌다(〈그림 31〉).

둘째, 1점의 그림은 공령의 기록보다 적은 인원이 그려졌다. 기축년 『진찬의궤』의 공령에서 무동이 공연한 무고의 무원은 무 8명이었는데,²⁵⁾ 정재도에서는 무 4명

23) 乙卯年 『整理儀軌』 卷5, 32a11-12. 「工伶」

24) 辛丑年 『進宴儀軌』 卷3, 37b9-10. 「工伶」

만 그려져서 4명이 생략되었다(〈그림 20〉).

무고 정재도에는 다양한 동작이 그려졌다. 정조 을묘년 『정리의궤』 아래 의궤 정재악장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무고의 춤동작은 “각기 북채를 잡고 음악의 절차에 따라 북을 치며 춤춘다(各執椎隨樂節擊鼓而舞)”는 내용이다. 실제로 19점의 정재도에는 모두 북채를 잡고 북주위에 둘러서서 북을 치며 춤추는 장면이 그려져 있으며, 몇 가지 동작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금방이라도 북소리가 날 것처럼 북채를 든 두 팔을 높이 올리고 있는 역동적인 동작이 그려진 무고이다. 〈그림 24〉는 무원 4명이 모두 두 팔을 올리고 있어서 역동성이 두드러진 정재도이다. 〈그림 23〉·〈그림 25〉·〈그림 26〉은 원무 4명이 두 팔을 위로 올려 북을 치려고 하고, 협무 4인은 두 팔을 벌려 춤추는 모습이다. 둘째는 원무가 북을 둘러싸고 한 팔로 북을 치고, 협무가 바깥 원을 만들어 두 팔을 벌리고 춤추는 모습이다. 첫 번째의 네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령의 무고 정재도가 이러한 형태이다. 셋째는 무고 둘레에 동일한 거리를 두고 무동이 추는 무고 정재도이다. 무동의 정재도는 원무와 협무 모두 북에서의 거리가 같다는 특징이 있다.

무고의 정재도에서 다양한 무원이 구성된 사실도 확인된다. 무동의 정재도에서 가장 적은 무원은 〈그림 18〉·〈그림 19〉처럼 4인으로 구성된 사례이다. 원무 4인, 협무 4인으로 구성된 사례는 〈그림 27〉·〈그림 30〉·〈그림 32〉·〈그림 34〉이며, 무동의 출연진이 가장 많은 사례는 원무 4인, 협무 8인으로 구성된 〈그림 22〉이다. 여령의 경우에 가장 적은 무원이 춤춘 사례는 4인으로 구성된 〈그림 24〉이다. 다음으로 원무 4인, 협무 4인으로 구성된 사례는 〈그림 23〉·〈그림 25〉·〈그림 26〉·〈그림 29〉이다. 원무 4인과 협무 8인으로 구성된 사례는 〈그림 21〉·〈그림 28〉이며, 원무 4인과 협무 4인이 쌍으로 구성된 쌍무고는 〈그림 33〉·〈그림 35〉이다.

무원이 다양하게 구성된 까닭은 당시의 공연상황과 밀접하였다. 정재를 공연하는 전체 출연진의 규모에 따라 무고 정재의 출연진에 가감이 있었고, 그것이 정재도에 충실히 반영되었다. 무원의 증감은 일정한 방향이 있지 않았다. 점차 무원을 증가했다거나, 대한제국기에 특별히 무원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여령의 경우 1902년 4월과 11월 진연에서 무원이 늘어나기도 했으나, 무동의 경우에 무원 증가는 없었다.

25) 己丑年『進饌儀軌』卷3.5-6.「工伶」

정재도에서 무원과 동작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 정재는 가인전목단(佳人剪牡丹)·검기무(劍器舞)·보상무(寶相舞)·아박무(牙拍舞)·처용무(處容舞)·침수무(尖袖舞)·최화무(催花舞)·포구락(拋毬樂)·향령(響鈴)·향발(響鉢)이다. 보상무의 사례를 보면, 무자년 『진작의궤』, 기축년 『진찬의궤』, 무신년 『진찬의궤』, 무진년 『진찬의궤』의 보상무 정재도에서 보상반에 채구를 던져 넣으면 상으로 꽃을 주는 봉화나 채구를 넣지 못하면 붓으로 먹점을 얼굴에 그리는 봉필의 존재가 생략되었다. 그 이후의 연향에서는 여령과 무동의 보상무 정재도에 봉화와 봉필이 그려졌다. 보상무 정재도에서 무원의 구성은 봉화와 봉필을 제외하고 좌무 3명, 우무 3명으로 구성된 사례가 보편적이었으나, 기축년 『진찬의궤』 부편에 무동의 보상무 정재도에서는 원무 6명, 협무 8명으로 총 12명의 무원이 그려졌다.

정재도에서 무원의 변화는 없으나 자리배치가 다르게 그려지기도 했다. 연백복지무와 몽금척·춘앵전 정재에 이러한 사례가 보인다. 예컨대, 춘앵전 정재는 뜻자리위에 무원이 그려진 위치가 조금씩 달랐다. 단순히 무원의 변화로 정재도가 다르게 나타난 정재는 선유락·수연장이었다.

정재도가 항상 똑같이 그려지기도 했다. 현선도의 정재도는 15점이 전하는데 모두 선모가 선도를 바치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 밖에 경풍도(慶豐圖)·광수무(廣袖舞)·만수무(萬壽舞)·무산향(舞山香)·무애무(無舞)·봉래의(鳳來儀)·사선무(四仙舞)·오양선(五羊仙)·연화대(蓮花臺)·육화대(六花隊)·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제수창(帝壽昌)·첩승(疊勝)·초무(初舞)·춘광호(春光好)·침향춘(沈香春)·학무(鶴舞)·헌천화(獻天花) 등이 각각 2점 이상의 정재도가 전하나, 여령이나 무동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형태와 무원구성의 정재도가 그려졌다. 하황은(荷皇恩) 정재도 을묘년 『정리의궤』에서 무원이 과장되게 더 그려진 것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한 형태와 무원구성의 정재도가 전한다.

3) 정재도의 정확성

정재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그려졌을까? 의궤의 공령 항목과 비교해서 무원의 수가 정확하게 그려졌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가장 복잡한 정재도를 사례로 살펴보면 정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선유락 정재의 정확도를 알아보기로 한



〈그림 36〉 선유락 외무 15명.
무진년 『진찬의궤』 권수.15a.



〈그림 37〉 선유락 외무 37명.
임진년 『진찬의궤』 권수.40b.



〈그림 38〉 처용무
을묘년 『정리의궤』 권수.13b

다. 선유락의 정제도는 11점이 있으며, 모두 여령이 공연하였다. 을묘년 『정리의궤』는 공령에 선유락 무원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외하고, 10점의 정제도의 무원 숫자를 공령과 비교해보았다. 특히 선유락은 채선을 크게 둘러싸고 있는 외무의 숫자가 많아서 세심하게 목판화로 만들기에 어려웠을 것이다. 선유락 정제도에 그려진 외무의 숫자는 기축년 『진찬의궤』에서 26명, 무신년 『진찬의궤』에서 23명, 무진년 『진찬의궤』에서 15명(〈그림 36〉), 정해년 『진찬의궤』에서 26명, 정축년 『진찬의궤』에서 28명, 임진년 『진찬의궤』에서 37명(〈그림 37〉), 신축년 『진찬의궤』에서 25명, 신축년 『진연의궤』에서 34명, 임인년 4월과 11월의 『진연의궤』에서 32명이었다. 이를 각 의궤의 공령조에 기록된 무원의 수와 비교하니 모두 정확하게 맞았다.

그러나 항상 정제도가 정확하게 그려진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을묘년 『정리의궤』의 정제도에서는 실제보다 무원을 더 많이 그려 넣기도 했다. 예컨대 처용무의 경우에 공령에서는 처용 5명만 출연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²⁶⁾ 정제도에서는 처용 5인이 두 쌍이 등장하고, 7명의 험무와 집박(?) 2인이 그려졌다(〈그림 38〉). 집박을 제외하고 무원만 치더라도 공령보다 12인이 더 그려진 셈이다.

공령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정제도가 그려지기도 했다. 예컨대 순조 기축년 『진찬의궤』의 공령에서 검기무는 여령 6인이 무대(舞隊) 3을 구성하고, 동기 2인이 동기대 1을 구성하여 총 8명이 출연했다.²⁷⁾ 그런데 이를 기록한 정제도는 〈그림 39〉

26) 乙卯年 『整理儀軌』 卷5.32b5-6. 「工伶」



〈그림 39〉 검기무
기축년 『진찬의궤』 권수.25a



〈그림 40〉 검기무, 『기축진찬도병』 6쪽
서인화 외, 『조선시대 진연 진찬 진하병풍』, 33쪽

처럼 여령 4인이 무대 2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무원의 반이 생략된 것이다. 무원의 생략은 도병의 그림에서는 간혹 있는 일이었다. 도병이라는 한정된 지면에 공연장면을 그리려면 어느 정도 생략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같은 기축년 진찬의 검기무 공연이 도병으로 그려질 때에는 〈그림 40〉처럼 2명의 무원만 그리기도 했다.

또한 한 장면에서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다. 〈그림 39〉에서 앞에 있는 전대(前隊) 2인은 무릎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 한 명은 칼을 내려놓았고, 다른 한 명은 칼을 들고 있다. 반면에 뒤에 있는 후대(後隊) 2인은 서 있는 자세에서 상대하며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자세이다. 어쩌면 전대와 후대의 다른 모습의 그림은 다른 시간을 점유하는 춤의 두 진행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342종의 정재도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제작되었을까? 이를 확인하려면 정재 여령과 무동의 이름과 역할, 인원수가 모두 기록된 공령항목과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 그래서 정재도가 기록된 12종 의궤의 공령과 정재도를 비교해보니, 네 가지의 유형에서 공령과 정재도가 다르게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무원 수보다 정재도의 무원이 적게 나타난 경우이다. 무자년(1828) 『진작의궤』에서 포구락·헌선도·아박무·처용무·향발·광수무·초무의 공령의 무원수에 비해 정재도의 무원은 반 밖에 그려지지 않았다. 왜 일관적으로 무원이 반만

27) 己丑年 『進饌儀軌』 卷3.7a2-3. 「工伶」 “劍器舞呈才女伶，舞隊三【錦貝，玉眞，蓮紅，蓮月，錦花，允月】童妓隊一【降仙，金鶴】執事一【蓮紅】”

그려졌을까. 공령조의 맨 처음 기록에 왕에게 올리는 진작 때는 좌대(左隊)에서 정재를 공연하고, 왕비에게 올리는 진작 때는 우대(右隊)에서 정재를 공연 한다고 하였다.²⁸⁾ 순조와 순원왕후를 동시에 주빈으로 하는 진작례였기 때문에 정재를 좌대와 우대로 나누어 각각 올리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좌대 혹은 우대만을 그린 정재도의 무원이 공령 무원 수의 반만 되더라도 이를 오류로 볼 수 없다.

둘째는 다른 정재의 그림과 바뀌어 수록된 두 가지 경우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순조 무자년 『진작의궤』의 침수무 정재도는 실제로 공막무가 그려졌으며,²⁹⁾ 순조 기축년(1829) 『진찬의궤』의 연화무 정재도는 실제로 연화대무 정재가 수록되었다.³⁰⁾ 이처럼 정재도가 바뀐 오류를 두 군데서 발견했다.

셋째는 여령과 무동의 그림이 바뀌어 수록된 한 가지 경우이다. 고종 신축년(1901) 『진찬의궤』는 명헌태후를 위한 내진찬만 마련되었고, 따라서 정재는 모두 여령만이 담당했다. 그런데 헌천화(獻天花) 정재도에서만 무동이 춤추는 헌천화 그림으로 수록되어 있다. 공령 항목에 헌천화 정재에 참여한 여령의 명단이³¹⁾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무동의 그림으로 잘못 수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령과 무동의 그림이 바뀐 경우는 고종 신축년 『진찬의궤』의 사례가 유일하다.

넷째는 무원의 숫자가 잘못 그려진 경우로 모두 27점의 정재도가 해당된다. 무원의 역할과 이름이 분명히 기록된 공령과 비교하면 정조 을묘년(1795) 『정리의궤』에서 수연장·포구락·헌선도·무고·하황은·처용무·향발 정재 등 모두 7점의 정재도에서 무원의 숫자와 공령 기록이 달랐다. 순조 무자년(1828) 『진작의궤』에서는 향발 정재 1점, 기축년(1829) 『진찬의궤』의 오양선·아박(2점)·처용무·향발·검기무 등 6점의 정재도에서 공령 기록과 다른 무원 수가 그려졌다. 현종 무신년(1848) 『진찬의궤』와 고종 무진년(1868) 『진찬의궤』에서는 검기무·보상무 2점의 정재도가 각각 기록이 달랐다. 고종 정축년(1877)과 정해년(1887) 『진찬의궤』는 정재도와 공령의 기록이 모두 일치했다. 고종 임진년(1892) 『진찬의궤』에서는 경풍도

28) 純祖 戊子年 『進爵儀軌』 卷2, 24b3. 「工伶」 “大殿進爵時, 左隊呈才, 中宮殿進爵時, 右隊呈才.”

29) 純祖 戊子年 『進爵儀軌』 卷首, 15a.

30) 純祖 己丑年 『進饌儀軌』 卷首, 24b.

31) 高宗 辛丑年 『進饌儀軌』 卷3, 18b8-9. 「工伶」 “獻天花呈才女伶, 執幢二【點紅·翠蓮】, 仙母一, 【錦娘】. 舞二, 【明玉·月色】, 奉卓二【桃花·竹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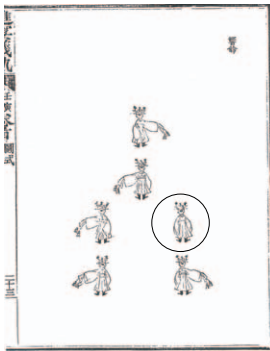
와 연화대무 등 2점의 정재도와 공령의 기록이 달랐다. 고종 신축년(1901) 『진찬의궤』에서 가인전목단 정재도와 공령에 기록된 무원 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신축년 『진연의궤』에서 연화대무·무고·가인전목단 3점의 기록이 불일치했다. 고종 임인년(1902) 4월 『진연의궤』에서는 연화대무와 가인전목단 무원 수가 달랐으며, 고종 임인년 11월 『진연의궤』에서는 연화대무 정재도와 공령의 무원 수가 달랐다.

결과적으로 공령의 기록과 정재도를 비교할 때, 30점의 정재도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정재의 그림이 바뀐 2점, 여령과 무동이 바뀐 1점, 무원의 숫자가 다른 27 점이었다. 무원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오류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 기록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315점의 그림에서는 공령에 기록된 무원의 수가 그대로 정재도에 표현된 반면, 27점의 정재도에서는 무원의 수가 공령과 다르게 그려졌으므로 오류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정재도 342점 중에서 30점의 정재도에서 오류가 있는 셈인데, 이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약 9% 정도의 오류이다. 이를 토대로 하면 정재도의 정확도는 91%정도이며, 더 단순화시킨다면 정재도는 90% 정도의 정확도를 지닌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는 무원 수를 기준으로 정재도의 정확성을 가늠해 보았다. 그렇다면 정재 동작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의궤가 공연 이후에 제작된 것이고, 화가의 손길로 목판된 것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오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동작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춤 진행으로 추정을 해 보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내용적인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정재도의 기록만을 맹신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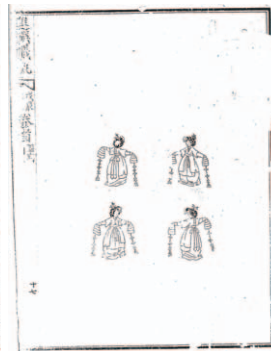
는 안 될 것이다.

향령무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향령무는 <표 2>에서 보듯이 모두 10종의 의궤에 14점의 정재도가 전한다. 5건은 무동의 정재도이며 9건은 여령의 정재도이다. <그림 42>과 같이 서로 마주 보고 춤추



<그림 41> 향령.

임인 11월 『진연의궤』 권수.23a



<그림 42> 향령.

무진 『진찬의궤』 권수.17a

는 상대이무(相對而舞)의 형태로 그려진 향령은 무신년(1848) 『진찬의궤』와 무진년(1868) 『진찬의궤』로 2점뿐이고, 14점의 향령은 모두 <그림 41>와 같은 형태로 그려졌다. 그런데 <그림 41>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한 손을 바깥쪽으로 든 거외수(擧外袖)의 형태로 보인다. 맨 위에는 무원의 오른 손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왼 손을 들었으며, 맨 마지막은 각각 바깥 손을 들었다. 문제는 세 번째에 위치한 대형이다. 보기에 오른쪽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의 무원은 홀로 아무 손도 들지 않은 채 서 있다. 춤 진행의 한 장면을 그린 그림이라면 무원들이 같은 시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홀로 다른 시간을 점유하는 듯이 고요하게 서 있다. 이는 춤의 진행을 생각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이것을 그림의 오류로 보아야 할 지, 한 명만 다른 동작을 보여주는 화원의 창의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렵다. 정제도의 내용적인 타당성에 관해 자세한 고찰이 필요한데, 연구과제로 남기고 여기서는 문제제기만으로 그친다.

지금까지 논의된 의궤별, 종목별 정제도 수록 현황을 보기 쉽게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또한 정제도의 정확도까지 한 눈에 파악하도록 공령과 정제도의 무원수가 다른 경우, 그림이 바뀐 경우, 여령과 무동이 바뀐 경우를 각각 표기하여 제시하였다.

IV. 맺음말

이 글은 거시적인 시각의 정제도 연구가 없었다는 점과 전체 의궤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다는 점을 문제제기하며 정제도의 제작 배경과 정제도의 현황을 밝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정제도는 의궤와 함께 제작되며, 연향을 마친 뒤에 설치된 임시기구인 의궤청에서 의궤와 정제도를 제작하였다. 정제도는 을묘년 『정리의궤』부터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정제도를 비롯한 도식(圖式)이 목판화로 만들어졌고, 그 전통은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정제도가 전하는 연향 관련 12종 의궤의 정제도는 모두 목판화로 제작된 것이다. 정제도가 그려진 이유는 왕실행사에서 공연된 정제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과 후대에 참고가 되도록 하려는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조선후기 의궤에 전하는 여령과 무동의 정재도는 모두 342점이고, 44종목의 정재가 그려져 있다. 정재도의 주역은 여령이었으며, 외연보다는 내연이 정재공연의 주요무대인 것이 확인되었다. 의례의 중요도와 정재공연의 종목 수가 비례하지 않은 것처럼 외연보다는 내연에서 더 많은 정재가 공연되었고, 더 다양하고 많은 수의 정재도가 그려졌다.

의궤별로 정재도를 그리는 방식의 차이도 드러났다. 을묘년 『정리의궤』는 한 화면을 꽉 채우는 구성으로, 실제보다 무원을 더 그려 넣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정재도가 기록된 것은 무고정재로, 총 19점의 정재도가 그려졌다. 전례를 참고했음에도 정재도는 같은 정재를 그릴 때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물론 같은 장면만 되풀이 되는 정재도도 존재했다. 목판화로 제작된 것을 고려할 때 정재도는 손으로 그린 것처럼 세심하게 그려졌다.

정재도 기록의 정확성은 약 90퍼센트이다. 정재도와 공령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정재도 기록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기록상 오류의 내용은 정재 무원의 숫자가 다르게 그려진 경우, 다른 정재의 그림이 그려진 경우, 여령의 공연에 무동이 그려진 경우이다.

정재도의 깊이 있는 연구는 의궤 속의 다른 문자기록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한된 지면으로 그림과 문자기록을 연결하는 작업이 미진하게 이루어졌는데, 향후 연구에서 보다 발전시키기로 한다.

■참고문헌

正祖 乙卯年 『整理儀軌』(『園行乙卯整理儀軌』, 수원시, 1996)

純祖 戊子年 『進爵儀軌』(國立國樂院, 『韓國音樂學資料叢書』 권3)

純祖 己丑年 『進饌儀軌』(國立國樂院, 『韓國音樂學資料叢書』 권3)

憲宗 戊申年 『進饌儀軌』(國立國樂院, 『韓國音樂學資料叢書』 권6)

高宗 戊辰年 『進饌儀軌』(奎13474)

高宗 丁丑年 『進饌儀軌』(藏書閣 圖書番號 藏2-2875)

高宗 丁亥年 『進饌儀軌』(藏書閣 圖書番號 藏2-2876)

- 高宗 壬辰年 『進饌儀軌』 (藏書閣 圖書番號 藏2-2878)
- 高宗 辛丑年 『進宴儀軌』 (國立國樂院, 『韓國音樂學資料叢書』 권24)
- 高宗 辛丑年 『進饌儀軌』 (國立國樂院, 『韓國音樂學資料叢書』 권23)
- 高宗 壬寅年.4월 『進宴儀軌』 (藏書閣 圖書番號 藏2-2871)
- 高宗 壬寅年.11월 『進宴儀軌』 (『高宗壬寅進宴儀軌』, 서울大學校奎章閣, 1996)
- 박정혜(2000).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서울: 일지사.
- 한영우(2005). 『조선왕조 의궤』. 서울: 일지사.
- 박은순(2005). 조선후기 의궤의 판화도식. 『국학연구』, 6: 249-308.
- 손선숙(2004). 포구락 정제도 연구. 『한국무용사학』, 3: 7-34.
- _____ (2004). 보상무 정제도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14: 143-164.
- _____ (2005). 수연장 정제도 연구. 『한국무용사학』, 4: 103-121.
- _____ (2007). 향령무 정제도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38: 79-105.
- _____ (2008). 의궤의 검기무 정제도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4: 129-144.
- _____ (2008). 의궤 정제도 가인전목단의 도상학적 연구. 『동방학』, 15: 345-375.
- 조경아(2007). 성천의 동기 강선, 궁중무대에 서다. 『근대 궁중무의 계승과 변화』, 서울: 보고서.
- _____ (2009). 조선후기 儀軌를 통해 본 本 才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 | | |
|-------|-------|----|-----|
| 논문투고일 | 2012년 | 6월 | 15일 |
| 심사일 | | 6월 | 22일 |
| 심사완료일 | | 7월 | 3일 |

Abstract

The Background of Making *Jeongjaedo* and Current Status of *Jeongjaedo* through *Uigwe* in the Late Chosun Dynasty

Cho, Kyung A

Research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background of making a picture of *jeongjae* called as *jeongjaedo* and current status of *jeongjaedo*. *Jeongjae* was being produced together with *uigwe*, and *uigwecheong* which was temporary agency established after a banquet produced *uigwe* and *jeongjaedo*. *Jeongjaedo* has been drawn from *Chungliuigwe* in 1795's. *Jeongjaedo* was made of woodcut. The purpose of producing *jeongjaedo* were to record the *jeongjae* performed in royal event accurately and to make it as reference for future generations.

Jeongjaedo delivered by *uigwe* in later of Chosun Dynasty are total 342 pieces, and 44 repertoires are drawn. It is the Mugo which recorded the most of *jeongjaedo*, total 19 pieces of *jeongjaedo* were drawn. Also, per *uigwe*, it has been revealed differences in the way of drawing *jeongjaedo*. The accuracy of recording *jeongjaedo* is approximately 90%. If we compare *jeongjaedo* and record of *konglyunng*, the error in record can be confirmed.

keywords: *uigwe*(의궤), *jeongjae*(정재), *jeongjaedo*(정재도), *konglyunng*(공령), woodcut(목판화)